

35.1도... 폭염경보·열대야 '하루종일 째퐁'

광주·전남 5일 연속 폭염특보... 온열질환자·정전 피해 속출
노약자·만성질환자 건강 체크 오후 2~5시 옥외 활동 피해야

장맛비가 그친 광주·전남이 연일 한중막 무더위로 '팔팔' 끓고 있다.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닷새 동안 광주·전남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과도한 전력사용으로 변압기가 과부하로 불이나 정전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30일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광주와 전남 6개 시·군(나주·담양·곡성·구례·화순·해남)에 이미 발효중이던 폭염경보를 장성·광양·순천·영암·함평 5개 시·군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고흥·보성·여수·장흥·강진·완도·무안·영광·목포·신안·진도 11개 시·군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30일 광주·전남지역 낮 최고기온은 34.3도, 일체감최고온도는 35.1도를 기록했다. 또 29일과 30일 사이 광주지역 밤 최저기온은 25도를 기록해 열대야 현상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장마가 끝난 뒤 높은 습도에, 남풍으로 인해 구름까지 적어 태양열이 바로 직접 지표에 닿기 때문에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 1일까지는 폭염특보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티벳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되기 때문이다. 31일 광주·전남 낮 최고기온은 31~35도로 분포하고, 다음달 1일에도 비슷한 기온을 보일 것이다. 밤낮 가릴 것 없는 고온 현상으로 노약자를 중심으로 온열질환자도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광주 6명, 전남 2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지난 29일 오후 4시 50분께 광주시 북구 임동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야구장 입장표를 구매하고자 대기하던 A(14)양이 구도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소방당국은 A양이 장시간 뜨거운 햇볕에 노출돼 열사병 증세를 보인 것으로 보고 냉찜질 등 응급처치를 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다.

앞서 같은 날 오후 1시 40분께에는 광주시 남구 봉선동에서도 무더운 날씨로 인한 탈진 신고가 접수됐다. 탈진한 시민은 출동한 소방당국의 응급처치를 받고 곧바로 회복됐으며 생명이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더위에 따른 정전도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29

일 오후 7시 50분께 광주시 남구 월산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노후화된 변압기가 과부하되면서 불이 났다. 이로 인해 정전이 발생해 아파트 2개동 312세대에 전력 공급이 끊겼다. 한국전력공사는 29일 밤 9시에 복구작업을 시작해 30일 새벽 0시 30분께 복구를 마쳤다. 하지만 열대야 속에서 4시간 40여분 동안 시민들은 선풍기조차 못 틀고 더위에 시달리는 등 불편을 겪었다.

기상청은 31일 오후 소나기가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기온이 하락할 수 있으나, 비가 그치면 태양열로 인해 지표가 빠르게 데워지고 소나기로 인한 습기까지 더해져 체감온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높은 기온과 습도가 당분간 유지되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겠으니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온열질환에 주의하라"며 "노약자와 만성질환자 등은 건강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무더운 시간인 오후 2~5시에 옥외작업을 피하는 등 주의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일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장흥물축제 '살수대첩' 2023 정남진 장흥물축제가 다음달 6일까지 장흥읍 탐진강 수변공원과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에서 펼쳐진다. 29일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거리퍼레이드 '살수대첩'에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물축제를 즐기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2025 광주 세계양궁대회, 평화·축제의 장으로"

강기정 시장, 베를린 총회 참석
광주 인프라·대회 비전 등 발표

"2025년 광주 세계양궁선수권대회는 전 세계 축제의 장으로, 지구촌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성공적인 대회로 준비하겠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8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타이타닉호텔에서 열린 '세계양궁연맹(WA) 총회'에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차기 개최도시 대표 자격으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5.21면>

강 시장은 이날 총회에서 2025년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의 준비 상황을 설명하며, 성공 개최를 약속했다.

그러면서 광주 양궁의 탄탄한 기반시설과 광주가 배출한 세계적인 양궁스타, 올해 대회가 열리는

베를린과의 인연 등을 전하며 2025년 광주 대회의 성공 개최에 전 세계 양궁인들이 힘을 모아 줄 것을 호소했다.

강 시장은 "광주는 2002년 한일 월드컵과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대규모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값진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온 도시"라고 광주를 소개했다. 이어 "서항순, 장유호, 주현정, 기보배, 최미선, 안산 선수 등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비롯해 세계적인 실력을 갖춘 수많은 공사를 배출했으며, 체계적인 훈련과 경기가 가능한 국제 규모의 양궁장 등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탄탄한 광주 양궁 인프라를 강조했다.

광주시는 도시 홍보 영상을 통해서도 국제대회 성공 개최 경험과 문화예술 도시의 저력을 바탕으로 '양궁의 세계적인 인기 스포츠 도약'을 위한 기폭제 역할을 하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강 시장은 2023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베를린과의 인연도 강조했다.

그는 "이년 양궁대회 결승전이 열리는 베를린 올림픽 주경기장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1936년 한국 마라토너 손기정 선수가 태극기를 달지 못한 채 금메달을 받은 아프고도 영광스러운 장소"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또 지난 2016년 개인적으로 베를린에 문화와 혁명적 기운이 가득했던 경험들을 전해 참석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는 "2016년 7개월 간 베를린에서 머물렀다"며 "베를린은 제게 많은 영감을 줬고 제가 사랑하는 도시 광주와 많이 닮았다. 문화적이면서 혁명적인 도시"라고 "베를린 사랑"을 드러냈다.

강 시장은 끝으로 "2025년 광주에서 다시 만나자"며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세심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총회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은 광주와 훌륭한 대회 인프라와 세계적인 양궁 선수 배출, 광주 시민들의 열성적인 대회 참여에 공감하며 차기 광주대회의 성공개최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앞서 강 시장은 전날인 27일 우구르 에르데너(Dr.Ugur Erdener) 세계양궁연맹 회장과 임원을 비롯한 대회 조직위원회 임원들이 참석한 만찬을 직접 주재하며 차기 광주대회 성공 개최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는 등 우호 관계를 돈독히 했다. 이날 만찬에는 김병내 남구청장과 박병규 광산구청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만찬에서 참석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곳곳에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2025년 광주 대회'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중요한 대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함께 하자고 뜻을 모았다.

/독일 베를린=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2weeks
고함양 고함도 레티놀이 분기된
잠자 주름 2주만에 개선
— IOPE LAB

슈퍼레티놀 단 2주만에 주름잡다

|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

주름을 위한 당신의 노력을,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 주름보다 강한 슈퍼레티놀로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느껴보세요

레티놀은 아이오페

IOPE

*인·40~50대 성인 여성 대상(조사 2019.08.16~10.17) 10명(10명)이 피부개선효과를 나타내며
고객상담실 080-023-5454 | www.iope.com